

제 4 차 전 국 로 병 대 회 성 대 히 진 행 경 애 하 는 김 정 은 원 수 님 께 서 대 회 에 참 석 하 시 여 축 하 연 설 을 하 시 였 다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천만군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총공격전을 힘있게 다그치며 선군조선의 자랑찬 승리의 새 역사를 펼쳐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제 4차 전국로병대회가 7월 2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국해방 일흔돌과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돌이 되는 뜻깊은 해의 전승절을 맞으며 로병들의 긍지높은 대회합이 마련된것은 위대한 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여가는 백두산대국의 선군혁명승리사에 특기할 의의깊은 사변이다.

전승세대의 고귀한 넋과 애국헌신을 값높이 내세워주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와 온 나라의 커다란 관심속에 열린 이번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빛내이며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영웅적기상과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하는데서 중대한 역사적계기로 된다.

대회에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한 항일의 로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전시공로자들과 비전향장기수들, 전후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위훈을 떨친 로병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있는 새 세대 일군들과 인민군군인들, 청년학생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제 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강대성과 존엄, 필승불패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반미대결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에 불멸의 공헌을 한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과 전체 대회참가자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였다.

황병서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 리을설동지, 황순희동지, 김철만동지, 박경숙동지, 리영숙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오국렬동지, 최영림동지, 태중수동지와 로병들,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개회가 선언되자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의 노래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제 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서 열정에 넘치신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3 번 으 로 계 속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명도밑에 혁명선배들이 창조하고 빛내여온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굳건히 계승하여 최후승리의 7.27을 기어이 안아올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열, 투쟁열이 4.25문화회관대회장에 차넘치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원수복을 입으시고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영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는 속에 세계 《희망》을 자랑하던 미제를 쳐부신 크나큰 긍지와 환희에 넘쳐 승리한 고지에서 만세의 환호성을 높이 올리는 인민군용사들의 모습을 형상한 주석단배경에는 《제 4차 전국로병대회》라는 글발과 군공 메달모형이 걸려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명에 위병들이 서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한 영웅전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동지따라 만방에 빛내이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